

David Howard 박사, Joshua-Ruth, 세션 9, 여호수아 6-8

© 2024 데이비드 하워드와 테드 힐데브란트

룯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이것은 9번째 세션, 여호수아 6-8장, 여리고와 아이입니다.

알았어, 안녕. 이 부분에서는 이제 책의 두 번째 주요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6장부터 12장까지 포함할 것이며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땅의 정복, 전투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이 책의 주요 취지, 하나님의 선물과 유업 등에 대한 나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부분을 땅을 상속받음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6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리고에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첫 군사적 만남으로 다소 천천히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불성실하게 행동하여 그들이 패배하고 그런 다음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서 두 번째 도시인 아이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는 것은 라합이 보다 직접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일부가 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아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된 가나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0장은 일종의 요약입니다. 요약하자면 그 여파로 인한 특정 전투와 남부 지역의 다른 많은 전투에 대해 설명하고, 11장은 북부 지역의 전투에 대해 설명합니다. 12장은 정복된 왕들의 목록을 요약한 것으로서 이 부분이 끝납니다.

계속하기 훨씬 전에, 이 부분의 중요한 배경은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켜야 한다는 하나님께서 앞서 주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참고 사항을 그냥 적고 싶다면 지금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성읍이 도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거기. 신명기 20장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방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것을 하나도 살려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여섯 사람을 여기서 진멸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좇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자신도 특히 여기 6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동안 중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7절 이하에서 여호수아는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져 멸절되리라”고 말합니다. 기생 라합과 그와 함께한 자는 다 살리라 그가 보낸 말을 감쌌음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자신을 지켜 멸망에 바쳐진 것들에 손을 대지 말라. 그래서, 그것은 간다. 그래서 다시 다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윤리 문제를 더 정면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책에 대해 잠시 멈추게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책 자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6장은 여리고의 실제 멸망에 관한 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전해집니다. 나는 3장에 나오는 물이 멈추는 이야기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작가는 서사를 느리게 한다. 그는 그것을 계속해서 검토하고 맛보곤 합니다. 왜냐면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기서는 여리고를 도는 6일과 7일 동안 절정에 이르는 느리고 절묘한 건축이 시작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 근동의 매우 열악한 지도에서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그들이 방금 건너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리고는 이곳 계곡에 있는 일종의 관문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주요 교통 고속도로가 있고, 여기 건너편에도 있고 여기 저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쯤 되는 예루살렘에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려고 들어왔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의 큰 요새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여리고는 발굴되었으며 그 도시에는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책의 연대를 정확히 어떻게 정하고 언제 연대를 정할지에 관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벽을 발견하고 그것이 조슈아의 것이라고 생각한 존 가스탱(John Garstang)이라는 초기 학자가 있었다는 것을 읽으실 것입니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캐슬린 케년(Kathleen Kenyon)이라는 영국 고고학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날짜를 정하고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인 80년대와 90년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브라이언트 우드(Bryant Wood)라는 또 다른 학자가 케년의 연대 측정 방법이 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드의 말이 이 시점에서 일종의 마지막 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논의되는 시기에 여리고가 여호수아에 의해 멸망되었다는 매우 그럴듯한 증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전 날짜로는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말하는 세부 사항은 도시의 중요성과 물론 첫 번째 사건의 중요성을 입증합니다. 이후의 이벤트는 패션을 더욱 요약합니다.

그런데 6장 1절이 시작되면서 이야기의 시작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우리에게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안팎으로

폐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여 그 성을 방어적으로 봉쇄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리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요새화되고 폐쇄된 성을 어떻게 차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장 2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again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제 분명히 그들은 아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그 성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1장 3절에서 언급한 요점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거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이 그 성읍을 순회하리라 모든 군사가 옛새 동안, 즉 일곱째 날에 일곱 번을 하고 나팔을 불면 결국 성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여기 이 구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일종의 반복이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히브리어 이야기의 반복으로 인해 우리의 눈을 잠시 동안 흐릿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것은 오경의 의식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추수절을 기념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리고의 멸망이나 함락을 제시하거나 날짜를 표시하고 달력을 표시하는 다른 종류의 축제를 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와 같은 일종의 의식, 제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방식과 그것이 전개되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즉시 돌아서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5장의 의식을 토대로 이 정교한 의식을 거치게 하시고 이것이 단지 군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제사요, 주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수확할 때마다 땅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처럼, 그것을 일종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첫 번째 도시이자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간이 그것을 취하고 불순종하여 물건을 가져갔을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그가 죽임을 당하여 미안하다고 말하고 백성이 8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리품을 가져가야 한다고 지시하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일체 포함.

그러므로 만일 아간이 기다렸더라면 그 자신도 얼마의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로 돌아오면 쌓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에는 그들이 일찍 일어나는 일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3장 1절에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멸망에 바쳐질 것입니다(17절). 그리고 라합만 살려 두십시오.

물건을 스스로 가져가지 마세요. 은과 금(19절)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입니다. 그들은 금고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자마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쳤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저마다 자기 앞으로 성읍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도시를 점령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는 이유는 3장에서 기적이 묘사되는 방식의 대조를 보는 것이 정말 흥미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쌓아가며 음미하고, 동사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4장에서 다시 살펴보는

것, 물이 일어섰다 등등. 그 기적에 오랫동안 많은 강조와 관심이 기울여졌습니다.

여기는 거의 '황', 신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벽이 무너지고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설명은 없고 바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책에 나오는 처음 두 가지 기적입니다. 둘 다 어떻게 취급되는지가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2-26절에서 여호수아는 라합을 만나러 갔던 사람들에게 가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찾아내라고 지시하고 그 외에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24절. 그리고 그들이 라합과 창녀와 그 아버지의 가족을 구원해 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가 사자들을 숨겼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느니라

그래서 앞서 언급한 참조가 있습니다. 라합 자신도 육체적으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 살았습니까? 글썄요, 어쩌면 그녀의 가족일 수도 있고, 그녀의 후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신약성서의 예수님의 족보에서 라합을 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론은 여호수아가 그 도시에 저주를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성을 종군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장자를 희생하여 기초를 닦을 것이다. 그는 둘째 아들을 희생하여 성문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에는 저주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실제로 어떤 중요한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에는 이 저주, 즉 이 에피소드가 매우 극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열왕기상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600년, 500년, 600년 후인 아합의 시대일 것입니다. 아합은 당시까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을 보십시오.

바알의 아내를 위하여 아세라 목상 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리고 34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의 엘이 여리고를 건축했습니다. 그가 그 기초를 쌓았을 때 그의 장자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세웠을 때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정말 흥미롭고 극적이며 비극적인 성취는 여기 여호수아 6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비극적으로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고 그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도시를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는 멸망을 위해 여호와께 바쳐졌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동물의 첫 열매나 농작물의 첫 열매가 무엇이든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땅 자체에서 여리고는 일종의 십일조를 드려야 했고,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물질적으로 그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론 다음 장에서는 상황이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7장은 여리고 바로 근처에 있던 다음 도시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는 Ai나 Ai의 정확한 위치를 정확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대해 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서쪽으로, 그 근처 어딘가에 5, 1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 7장에서 나는 이 부분을 언약 불순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절에서 바로 그 사실을 봅니다. 7장 1절.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바쳐진 것들, 곧 멸망에 바쳐진 것들에 대하여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기소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는 아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바쳐진 것들에 관하여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등이 온전히 바친 물건과 여호와와의 진노를 취하여 백성을 향하여 불사르니라 그래서 여기에 개인과 국가 사이의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가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구약의 많은 부분을 통해 많이 볼 수 있는 일종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더 큰 그룹에 영향을 미쳤음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두 번째로, 내 버전의 용어가 믿음을 깨뜨렸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일부 버전에서는 불충실하게 행동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민수기 5장에서 아내가 간음을 범함으로써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즉, 결혼 서약을 어기고 불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기, 여기에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두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에서 금지된 것들을 빼앗음으로써 아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표자인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불순종의 극적인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그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즉 아간이 방주를 일으켰는데... 죄송합니다. 6장에 있습니다. 7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네, 11절은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10절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얼굴에 쓰러졌나요? 물론 여호수아는 주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많은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7장 1절을 보십시오. 아간이 바친 물건 중 일부를 취함으로써 믿음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믿음을 깨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좀 더 일반적인 추상적인 표현입니다. 헌신적인 것들을 취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소는 믿음을 깨뜨리는 것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냅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느니라. 어떨게요? 첫째, 그들은 내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는 생각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바친 물건 중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도둑질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넷째. 그들은 그것들을 자신의 소지품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죄를 취하시고 그 여러 가지 측면을 드러내시며 여기에서 범한 죄가 수없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한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1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너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적들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에 바쳐진 가나안 족속과 달리 그들 자신도 멸망에 바쳐졌기 때문에 그 대적들 앞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같은 일의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읽어도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의 백성과 지도자들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나중에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이가보드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기에는 히브리인 이가보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광은 거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끔찍한 일이며, 이스라엘의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에 보면,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여호와와 말씀에 이것들은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이니 반드시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는 3장 5절의 메아리입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 즉 홍해를 건너는 일, 기적,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소극적인 것으로, 즉 아간을 식별하고 그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엄숙한 행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여호수아는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지파별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흥미로운 종류의 것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 우리가 이스라엘의 사회학,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학 및 국가의 사회 구성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지파별로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 같군요. 그러나 16절에서는 유다 지파가 정하여지고 이 지파의 모든 족속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으며 세라 족속은 뽑혔다 고 말합니다. 그가 세라 족속을 남자별로 데려오매 삽디가 뽑혔느니라.

그리고 그는 남자별로 집사람을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삽디 의 손자 , 세라 사람의 아들인 아간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종족, 씨족, 가정, 그리고 개인의 사회조직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사회의 계층화에 대해 우리에게 조금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네 가지를 말하고 그에게 네 가지를 명령합니다. 19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세 번째,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말해주세요. 그 반대의 경우는 나에게 숨기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에는 네 개의 동사와 네 개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견해로는 그것은 2인 2그룹이다. 그리고 첫째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가지는 그것의 표현입니다. 즉, 진실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중 하나를 시작하지 말고 그냥 진실을 말해주세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 생각엔 그게 오늘의 교훈인 것 같아. 우리는 진실을 말하면서 정직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진실이 마땅히 그래야 할 만큼 높이 평가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문화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대답하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전리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것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가져가고 싶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의 텐트에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로 인해 아간의 온 가족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 멸망한 것입니다. 돌로 치고 불로 살랐다(25절).

그리고 그들은 그 책이 기록될 때마다 오늘날까지 그 곳에 남아 있는 큰 돌무더기를 그 위에 쌓았습니다. 그 이름은 아골 골짜기라 불린다. 그리고 아골이라는 단어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큰 어려움이 있었던 계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슬픈 사건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여호수아서는 이 책의 가장 낮은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책에서 이 책은 행복의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마침내 여기에 왔다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좋습니다.

약속 이행. 우리는 책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할 것입니다.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명령이 이행되고 있습니다. 등등. 그러나 이것이 이 책의 낮은 점입니다. 한 개인이 언약을 어기고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시고 그 나라는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는 8장에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아간과 그의 가족은 7장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8장으로 가면서 우리는 미안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꽤 연대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 7장의 시작 부분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고 싶습니다. 아간이 발견되기 전에 분명히 이 장은 아이성에서 그 나라가 패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여기 아이(Ai)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 주목하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2절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를 네 손에 붙였느니라 등등. 6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과 그 모든 것. 7장에서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하러 나갔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7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아,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를 보내서 2,3000명을 보내고 아이를 공격하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천 명이 가서 패했습니다.

삼십육 명이 죽었습니다(5절). 그리고 이것은 참패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책의 나머지 부분과 오경의 전투를 통해 우리는 패배한 사람의 수를 실제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3천36명의 군대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담한 패배로 취급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주목하세요. 신은 이곳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이 책의 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없다고 말하려는 메시지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패배한 이유입니다. 8장에 이르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십시오. 8장 1절에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장을 반복하여, 너희는 용사들을 데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을 너희 손에 넘겨 주었으니 등등이다. 따라서 그 모든 어휘는 1장과 6장을 반영하지만 7장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7장은 이상치이며 이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갔고 이번에는 물론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꽤 긴 장인데, 밤에 나가는 용맹스러운 군인이 3만 명이고, 그들은 도시 서쪽에 매복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슈아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는지, 다른 그룹이 무엇인지에 대해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장 12절에서는 여호수아와 오천 명을 언급하고 있고, 8장 3절에서는 삼만 명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일종의 플래시백인 것 같고 숫자가 누락된 것 같기도 하고 그 중 하나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천삼만은 같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복사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만 명이라는 집단도 없고, 5천 명이라는 별도의 집단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자 여호수아는 두 번에 걸쳐 밤을 보내거나 9절과 13절에서 그 일을 두 번 언급합니다. 그러나 14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밤을 지냈는지 보여줍니다. 아이가 이 작은 무리, 이 무리가 서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그쪽으로 나가자, 본군이 그들 뒤에 와서 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아이와 벤엘에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그 성읍은 열려 있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손에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며,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절, 미안해요, 예, 20절., 아이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성읍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그들이 패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아이 왕을 잡아서(23절) 여호수아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승리였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1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손을 거두지 않고 단창을 뺀어 그 주민을 다 멸하고 그 성읍을 불살랐습니다(26절).. 암튼 대단한 승리네요.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약간 불안하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의 감성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것은 7장에서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악을 제거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큰 돌무더기로 끝나는데, 그 돌무더기는 그때마다 오늘날까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장, 7장, 8장은 최초의 두세 가지 가장 큰 전투, 즉 여리고에서의 큰 승리, 아이 성에서의 패배, 그리고 아이 성에서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묘한 디테일.

이제 나중에 훨씬 더 요약적인 진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 측면에서 8장의 끝 부분에는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 (8장 30-35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자기 백성에게 주신 명령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땅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신명기 27장에 있는 그 구절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원하시면 그곳으로 가십시오.

그 장의 시작 부분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그 땅에 들어가면 큰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쌓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 벽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건너가거든 이 율법의 모든 책을 그 위에 기록하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까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 산에 세워라.

그러므로 이것은 그들이 요단강에 세운 돌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땅으로 들어올 때 그들은 이 땅으로 들어왔지만 에발 산과 그리심 산은 북쪽으로 약 25,30 마일 떨어진 땅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이 일을 하도록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을 가져다가 회반죽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 회반죽 위에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쇠연장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들은 다듬지 않은 돌로 되어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돌에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라. 이것이 여기에 지침입니다. 이제 2절의 명령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땅 요단을 건너는 날에 이를 행하라 하면 이스라엘이 즉시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말 그대로 바로 그 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25, 30 마일을 올라가도록 뜻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건너갈 때 꼭 거기서 올라가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들은 그 땅의 중심부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통과하여 전투를 벌인 다음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에 그 에피소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신명기 27장의 성취인 거의 단어 그대로의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그 때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데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점을 다시 강조하자면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고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책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종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여호와와 종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와 종 모세가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과 같으니라 신명기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이 있느니라

그 위에 번제 곧 화목제를 드렸더라(31절, 32절). 그는 장차 기록될 모세의 율법을 복사하여 돌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제 저는 새로운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온 이스라엘 곧 나그네와 본토인과 모든 친척과 관리들 등이 반대편에 섰다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잠시 멈춰서 이 체류자가 누구였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 버전에서는 Sojourner라고 읽습니다.

일부 버전에서는 낯선 사람 또는 외계인, 외국인입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매우 일반적이며, 국민,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지나가던 상인들의 대상처럼 우연히 접촉하게 된 외국인에 가깝습니다. 이 단어는 매우 구체적인 단어인데, 게르(ger)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게르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안에 거주했던 외국인이었습니다. 게르는 책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데, 대개 서너 명씩 그룹화되어 이스라엘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과부, 고아, 외국인 또는 외국인, 게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어떤 의미에서 무력했거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과부들에게는 부양할 남편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고아, 부모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양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르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안팎에서 거주하기로 선택한 외부인, 외국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잘 대해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에 이스라엘은 본토인이든 외국인이든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 특히 외국인들을 대해야 했고, 이를 통해 지켜보는 세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외국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일부가 되는 또 다른 예입니다.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은 완료되었는데, 구약성경 기록이 아마도 BC 400년경에 끝났거나, 에스라-느헤미야 시대로부터 수십 년 후쯤에 끝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실제적인 새로운 계시가 없었던 약 40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그리스인들은 알려진 세계를 정복했고 그리스어는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히브리어가 아닌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일 유대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구약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버전은 칠십인역이라고 불리며 아마도 기원전 250년경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던 이유는 칠십인역에서 게르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가 매우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칠십인역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 학자들이 썼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히브리어 단어 Ger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개종자.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어 단어에서 proselyte, proselytize와 같은 영어 단어를 얻습니다. 그리고 개종자는 본질적으로 개종자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과 모르몬교인들이 동네를 다니며 집집을 두드리며 전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개종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게르가 개종자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게르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게르는 혈통이나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본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 배운 이분법 중 하나, 즉 구약의 행위나 희생에 의한 구원과 신약의 믿음에 의한 구원이 여러 가지 증거 수단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게르는 십계명에 언급되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계명에는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딸과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문안에 있는 게르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외국인인 게르(Ger)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킨다고 할 때 본토인이나 게르를 막론하고 할례받은 자라면 누구나 유월절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게르가 할례를 받는 한 이스라엘의 가장 성스러운 의식인 유월절에 환영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게르라는 용어는 라합에게 결코 사용되지 않지만 나는 라합을 게르 중 하나로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봅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호수아 8장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33절을 읽어보세요.

이 언약갱신식에는 이스라엘 전체, 게르와 본토혈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 있고, 제사장들은 거기 있고, 법궤를 지고 있습니다. 그 절반은 그리심 산에 서 있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 산에 서 있습니다.

신명기 27-28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 두 산 사이에 읽혀지는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아니면 읽어야 할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 다음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33절 끝).

여호수아는 신명기 27~28장에서 율법의 말씀과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책에 다 기록되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준행한 것이 하나도 없고(35절), 미안하도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온 회중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스라엘. 그들과 함께 살았던 남자들, 어린아이들, 게르.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신명기 27장의 명령을 신실하게 실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 시기가 즉각적이든 아니든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미 전체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책에 따라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책. 이것은 확실히 반응이며, 의심할 바 없이 아이에서의 죄와 패배, 아간의 죄, 그리고 이제 승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제가 6-8장에 대해 말하고 싶은 전부입니다.

룻기를 통해 여호수아를 가르친 Dr. David Howard입니다. 이것은 9번째 세션, 여호수아 6-8장, 여리고와 아이입니다.